

[제2025-02차]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5년 12월 30일 (화) 오후 2시
2. 장소: 머니투데이방송 4층 대회의실
3. 참석위원: 박호진(위원장), 서성완(부위원장), 이호섭, 구강모, 조은아, 김윤정, 임수신 (총 7명 전원 참석)
4. 회의 안건:
 - 안건 1: <여의도 클라쓰> 추천 종목 사후 관리(A/S) 부재 및 급등주 위주 편성 시정
 - 안건 2: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'개인 종목 상담 프로그램' 확대 편성 건의

[회의 내용]

○ 박호진 위원장: 금일 회의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공식 수렴하여 방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. 최근 증권 방송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이를 중점 논의하겠습니다.

■ 안건 1: <여의도 클라쓰> 추천 종목 사후 관리(A/S) 및 편중성 문제

○ 조은아 위원: 야간 프로그램 <여의도 클라쓰>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적 의견이 있었습니다. 추천했던 종목이 하락할 경우 별도의 사후 관리(A/S)가 이루어지지 않고,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종목 위주로만 방송을 진행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입니다.

○ 구강모 위원: 증권 방송은 시청자의 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정보 전달이 핵심입니다. 상승한 종목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치중하기보다,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.

○ 서성완 부위원장: 제작 현장에서도 수익률 위주의 구성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 <여의도 클라쓰> 제작진과 협의하여, 주 1회 이상 '종목 리뷰 및 A/S 세션'을 고정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.

■ 안건 2: 개인 종목 상담 프로그램 확대 편성 의견

○ 김윤정 위원: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. 현재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개인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. 현재보다 1:1 종목 상담 시간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달라는 요청이 꾸준합니다.

○ 임수신 위원: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가 늘어날 때 방송의 신뢰성도 함께 높아집니다. 전문가들이 시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.

○ 이호섭 위원: 편성제작국 차원에서 시청자 참여형 상담 프로그램의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.

다. 특히 장 마감 이후나 야간 시간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담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.

5.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

- 안건 1 관련: <여의도 클라쓰> 내 하락 종목 리뷰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한 사후 관리(A/S) 코너를 즉시 신설하고, 급등주 위주의 구성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.
- 안건 2 관련: 시청자 참여형 종목 상담 프로그램의 확대 편성 기획안을 차기 정기회의 전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함.
- 기타: 본 회의록은 운영 규정 제7조 4항에 따라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개함.

6. 폐회: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. (오후 3시 10분)